

우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서문)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의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의: 060-9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태환/발행인 겸 편집인: 김경삼/논설위원: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0월 16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하나 더 있어서 좋은 신문’이라는 다짐으로 출발한 현대 불교신문이 15일째 창간 2돌을 맞는다. 한국불교 중단의 수장 격인 조계종이 개혁의 가치를 세웠던 2년전부터 신형전 문지를 표방하며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세계화를 위해 달려왔다. 부처님은 2540년전 율법의 마지막 단계였던 인도 쿠시 나강에서 열반에 들면서 부촉하셨다. “너희들은 마땅히 마음을 다해서(一心) 이 가르침(法)을 전파해 널리 증득되도록 하라.” 또한 바른 법을 어떻게 전파해야 하는지도 지시하게 알려 주셨다. 현대불교신문은 이같은 부처님의 유촉을 정론으로 펴나가며 받들고 있다. 불자들에게는 더없는 지부심으로, 나아가 이 시대의 목적으로 큰 울림을 보일 것을 재 다짐한다. (편집자 주)

이제 너희들에게 부촉하노니, 너희들은 마땅히 마음을 다해서 이 가르침을 가지고 널리 바구 바구니 우바 새 우바이와 모든 사문 바라문들 위해 전파하고 설하라. 심지어 모든 악마 외도 나간자 따위와 그릇된 견해를 지녀 부처님을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이 바른 가르침을 듣고 깊은 신심을 일으켜 부처님께 귀의하고 바른 견해를 받아 바른 가르침을 똑똑히 이해하도록 하라. (신불공덕경)

가르침에 전파하라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가르침 중에서 잘 생각해 비록 하나의 사구계라도 좋으니 남을 위해 밝혀 설함으로써 그들로 하여 수회해 의심을 내지 않도록 하고, 또 알려 주어서 많은 중생이 수회하고 찬탄해서 삼세계를 의 더없이 뛰어난 가르침에 안주도록 해야 한다. (보살장정법경)

너희들은 말법시대에서 마땅히 무량겁에 걸쳐 모아진 이 가르침의 꽃집을 잘 열어 사람들에게 주며, 널리 사부대중을 분발해 해설함으로써, 이 바른 가르침의 씨가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느니라. (지세경)

어둠속에 보물이 있다해도 등불 없이는 못 보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이 없으면 슬기 로어도 깨닫지 못한다. (화엄경)

남을 위해 경전의 가르침을 설하여 가르치면, 이런 사람은 응당 부처님을 가까이 하여 존중하고 공경한 것이 될 것이다. (발보리심경)

어리석은 사람은 대승경전의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을 내어, 그 제 마음을 따라 그곳 생각하고, 이것을 남에게도 자세히 전함으로써 대좌를 얻고 있다. (선계경)

중생의 감각기관이 지닌 습성과 욕구를 살펴보면, 습성과 욕구의 기능이 갖가지여서 무한함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설법도 무한할 수밖에 없고, 설법이 무한한 까닭에 도리 또한 무한하게 되는 것이다. (우량의경)

제가 가르침의 본의를 알고 있어야 남을 가르치기가 쉬워진다.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려 하면 먼저 저를 가르쳐야 한다. (불치심경)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가야산 골프장 반대” 60%

수행 환경권·문화재보호 제도화 필요 ‘공감’

현대불교 창간 2주년 기념 국회 정각회의원 신행의식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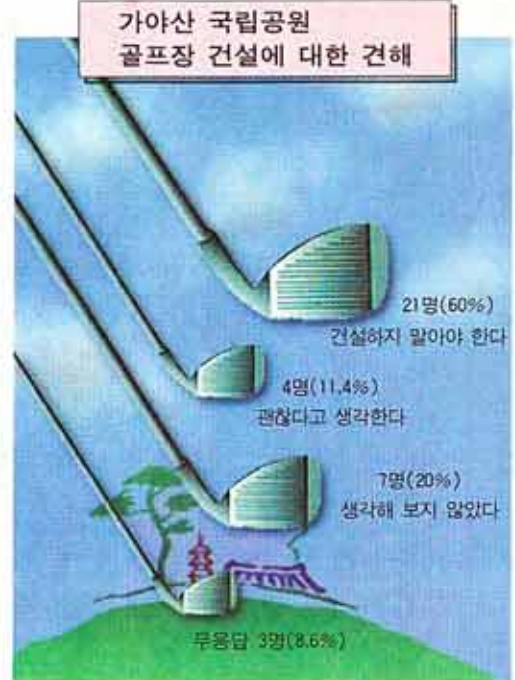
제15대 국회정각회 소속 불자의원의 대다수가 가야산 골프장 건설이 문화재보호와 수행환경의 지해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데 공감했다. 의원들은 이와관련 사회의 수행권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26명(74.3%)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계의 문화재보호와 사회환경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대한 국회의원 불자들의 관심도를 알려주는 대목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부고속철의 경우 통과에 대한 불자의원의 의지도 반대 14명(40%) 우회노선지 16명(45.9%)이어서 대다수의 불자의원이 교계와 생각을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

정각회의원 49명 중 35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야산 골프장 건설과 관련 환경 및 문화재 보존에 문제점이 많으니 건설되지 않아야 한다는데 불자 의원 21명(60%)이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반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4명(11.4%)이 답했으며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대답을 한 의원은 7명(20%)이었다.(무응답 3명)

이같은 불자의원의 인식은 현재 해인사를 중심으로 전국민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야산 골프장건설 반대운동에 상당한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설문에서 불자의원들은 해인사를 비롯한 사찰 주변의 골프장, 고층아파트, 대형빌딩 건설이 문화재보호와 수행환경의 지해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데 공감했다. 의원들은 이와관련 사회의 수행권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26명(74.3%)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계의 문화재보호와 사회환경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대한 국회의원 불자들의 관심도를 알려주는 대목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부고속철의 경우 통과에 대한 불자의원의 의지도 반대 14명(40%) 우회노선지 16명(45.9%)이어서 대다수의 불자의원이 교계와 생각을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

특히 불자의원들은 불교계 현안이 사회문제화 된다면 즉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생각해 본다는데 25명(71.4%)이 응답해 불교계 권익에 대한 적극성을 보였다. 이와관련 급히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관심은 갖겠다는 의견도 8명(22.9%)이 보임으로 불자의원들은 해인사를 비롯한 사찰



원들과 교계 현안을 다루는 주체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성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불자의원들은 불교계가 대사회적 활동을 벌이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관련기사 3면

창간 2주년 특집 28면 발행

- 특 집 I 직장·직능법회**
 - 좌담-이렇게 활성화 하자 ①
 - 단체현황 ②
 - 모범사례 ③
- 특 집 II 불교의 세계화**
 - 오늘의 지구촌 불교 ④
 - 화보-세계 불교문화유산 13곳 ⑤⑥

- 우바이 산악인 히말라야 등정 ⑦
- 산문부의 선 신호그룹 이순국회장 ⑧
- 박이문박사 특별기고 ⑨
- 고승한담-‘석주스님·송산스님’ ⑩⑪
- 권상로스님 미발표 유교 발굴 ⑫
- 세계만불전 현장 와우정사 ⑬
- 일타스님 일가 출가기 ⑭
- 가족과 함께 경주 남산순례 ⑮

불자 인터넷교육 무료실시

본사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불교계의 전산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보수집, 정보공유의 능력 배양, 전산화 마인드 고취를 위한 인터넷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정보사회를 따라 잡는 지혜로운 불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 교육대상: 338 남부대일학원 2층 (신도림 진철역)
- 스님, 불교계 업무 종사자 및 일반불자 -부산: 동구 초량3동 1163-2 부산상보컴퓨터 사옥 2층
- 모집인원 150명 -광주: 북구 유동 117-13 덕성B/D 3층
- 선착순(서울지역 90명, 부산·광주 각 30명) 1회당 30명씩 배정.
- 교육 장소: ■문의: 본사 전략정보팀 (02)737-8881
- 참모컴퓨터 교육센터 *철찬: 심보컴퓨터
-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교육 내용 및 일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일 정				
		1차시(10/16)	2차시(10/23)	3차시(10/30)	4차시(11/6)	5차시(11/13)
윈도우 기본	10:00-17:00	11.18.토	11.25.토	12.2.토	12.9.토	12.16.토
인터넷 기본	"	11.25.토	12.2.토	12.9.토	12.16.토	12.23.토
인터넷 응용	"	12.2.토	12.9.토	12.16.토	12.23.토	12.30.토
인터넷 고급	"	12.9.토	12.16.토	12.23.토	12.30.토	1.6.토

“사보(寺報)의 세계로 초대”

현대불교신문 창간 2주년 및 책방 여시아문 개점 2주년을 맞아 교계 최초로 사찰 사보(寺報)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전국 사찰에서 발행되는 사보를 비롯 각 수행단체의 회보(會報) 소식지 문서포고지 등 1백여점이 한자리에 모아집니다. 신형과 포교의 최일선 현장에서 불자들의 눈과 귀가 되어온 사찰 사보를 살펴보고서 사보문화의 위상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전시회에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 전시기간: 1996년 10월 23일~29일(7일간)
- 전시장소: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사옥 1층)
- 전시내용:
 - 사보의 최초 발행판 및 최근 발행판 각 1부
 - 사보의 연혁, 관형 및 사찰소개
 - 특별 이벤트: ‘재미있는 사보’ ‘인상깊은 사보’ ‘받아보고 싶은 사보’를 선정(관객 투표), 시상.
 - 이번 전시회와 관련 사보를 발행하고 있는 사찰에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시아문: (02)737-0695

대생용 미륵반가상 중·고교에 보냅니다

동참해주신 분

△법륜 (사)JTS 이사장: (2구좌) △대연 선정 정각사주지: (3구좌) △성오 의정부 회흥사스님: 의정부여고(1구좌) △김해진의 2명: (3구좌) △문종남의 5명: 안성여고 안성여중(2구좌) △광문초: 목포고(1구좌) △권혁진: 경기고(1구좌) △김재선의 3명: (10월 10일 현재 총 49구좌 접수)

△법륜스님
경안여상(2구좌) (10월 10일 현재 총 49구좌 접수)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2주년을 온佛자와 함께 축하합니다

同體大悲 四海一家

“부처님은
一切平等·萬有佛性과
무한한 자비심의 보살정신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同體大悲
四海一家의 정신으로
이世上을 살아가야 합니다”
(96.9.16 연등회 창립시 김대중 총재)



同體大悲 四海一家를 실천하는
새정치 국민회의 蓮燈會 一同